

# “간호법 제정되면 대리수술 합법화?...원인은 의사 부족”

### 진료지원간호사 10일 국회서 기자회견 “전공의 대체 아닌 간호사 업무 하고파”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다른 직역이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서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당당당하고 하고 싶어하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가장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와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원과 의원,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

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제 역할을 시켰다”며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간호법 공포 시 대리수술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진료지원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가 대체했다,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최이슬기자



**환경 위한 실천** 1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탐블러 데이’ 캠페인을 찾은 시민들이 텀블러, 개인 컵을 가져와 무료 음료를 받고 있다.

## SNS로 마약을 사려고 했더니...DM 몇 번, 8분이면 오케이

### 성별·나이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판매

마약에 손을 대는 10~20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마약을 구매하는 주요 경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SNS를 통해 구매를 시도해 봤다. 메시지 몇 번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기자는 ‘아이스’를 판매한다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SNS에 게시해 놓은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아이스’는 필로폰의 은어다.

거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로 진행됐다. 판매자는 먼저 ‘물건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이라고 하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를 하거나 무통장입금으로 거래를 한다’는 답이 왔다. 이어 매뉴얼처럼 정리된 ‘거래가능 물건’을 보내왔다. 아이스, 코카인은 물론 뜻을 알 수 없는 마약 관련 온갖 은어들

로 뻘뻘했다.

판매자는 ‘코인이나 무통장입금으로 거래한 후 누군가에게 말만 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걸릴 일은 없다’며 구매를 독려했다. 또 ‘성별이나 나이 관계 없이 돈만 보내주면 단지기 수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구매 직전까지 걸린 시간은 8분,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다.

SNS와 인터넷이 청년들의 마약 구매 루트로 약용되며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

1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만 2387명 중 3092명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2018년(1516명)과 비교하면 104% 급증

한 수치다.

2019년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중 20대는 16명, 10대는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0대 57명, 10대 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대마를 단지기 방식으로 구입한 후 부산, 마산 등지에서 약 30차례 흡입한 A(20대)씨를 구속하고 함께 투약한 B(20대·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가입한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판매책, 채널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 마약 유통, 투약사범 집중검거에 총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 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자, 깨우니 놀라서 순찰차 광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든 30대 남성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15분 광주 광산구 수완

동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문 혐의를 받는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 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깨우자 놀라면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형택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